

## 살펴 보기

: 건강한 조직문화 만들기

# 건강한 팀 문화 활동

## ‘나의 리즈시절 자랑하기’

벚꽃이 한창이던 지난 4월, 울산산업보건센터 보건관리팀에도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2021년 보건관리팀 달성 목표인 ‘의사소통을 통한 행복한 팀 운영’의 일환으로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없는 인간존중 문화 정착 활동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현재 울산산업보건센터(이하 울산센터) 보건관리팀은 ‘의사소통을 통한 행복한 팀 운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 가지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첫 번째는 성희롱 예방 수칙 준수와 상호존중문화 게시다. 직원들이 수시로 내용을 확인하고 스스로가 인지하며 행동할 수 있도록 부서 내 게시판에 실천항목을 게시하고 소통을 통해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고 정착시켜가고 있다.

두 번째는 개인 스트레스 반응 평가표 시행이다. 스트레스 관리 10계명(직무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직장도크 개인체크리스트 시행)을 게시해서 모든 팀원이 개인 스트레스 반응평가표를 작성하고 작성된 평가표를 토대로 충분히 의견을 주고받는 소통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이후에도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조사하여 정리한 후 스트레스로 인한 2차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보완하며 관리하고 있다.



박민수

대한산업보건협회  
울산산업보건센터  
사내기자





(뒤쪽 좌측부터)  
김아영 간호사, 우윤미 선임과장,  
박영미 팀장, 김윤중 대리  
(앞쪽 좌측부터)  
이현주 선임과장, 김가영 간호사

위 두 가지의 활동은 각각 2월과 3월에 시작해 다른 팀들의 부러움을 사며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세 번째 활동인 '나의 리즈시절 자랑하기'가 개최됐다.

세 번째 활동인 나의 리즈시절 자랑하기는 각자 본인의 리즈시절이라고 생각되는 시기의 사진을 제출 후, 전시해 순위를 정한 다음 시상까지 이루어졌다. 순위는 재미를 위한 것일 뿐 직원들의 멋진 리즈시절을 공유하고 즐길 수 있는 멋진 행사가 되었다.

1주일의 전시기간을 거친 후 직원들이 각자 한 표를 행사한 별표 스티커로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그 결과, 최고의 리즈 진에는 김선희(A) 선임과장, 최고의 리즈 선에는 박소연 간호사, 최고의 리즈 미에는 오진주 과

장, 지금이 리즈상에는 권은경 선임차장이 선정됐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특별상과 참가상까지 준비되어 많은 직원이 소통하며 즐기고 상품까지 수여하는 뜻 깊은 행사로 마무리됐다.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스트레스로 힘들어하거나 다른 직원과의 마찰로 어려움에 처하기도 한다. 심하면 성희롱 등의 괴로움을 겪는 일도 없지 않다. 그런 경우 대부분 혼자서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 애쓰거나 최악의 상황에는 이직을 결정하게 되기도 하는데 울산센터 보건관리팀은 '의사소통을 통한 행복한 팀 운영'이라는 목표 아래 모든 직원이 참여하는 화목한 행사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소통하는 멋진 팀으로 거듭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